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코 12,43)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 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1/10(일) 연중 제 32 주일 (본당 11:00, 공소 17:30)  
▶11/12(화) 성 요사팻 주교 순교자 기념일(본당 20:00)  
▶11/17(일) 연중 제 33 주일(본당 11:00, 공소 17:30)

◎2025 사목회장 선출  
본 투표-12 월 1 일 교중 미사 후  
부재자 투표(12/1 미사 참석이 불가능하신 신자) - 각 구역 미사 후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전례부 - 전례부원을 찾습니다. 문의: 전례 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성가대 - 지휘자, 반주자를 찾습니다. 문의: 성가대 임예천 글라라  
▶주일학교 - 홍연아 에스텔 자매님께서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림환  
올해 대림시기 대림환을 가정에서 준비하고 싶으시면 가정용 대림환을 만들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성당에 모여서 만들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24 일까지 전례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재료비부담은 \$20 입니다

◎세례식  
▶일시: 11/24(일) 교중 미사 중 (대상: 5 명)  
※11/17(일) 9:30 미사 전 세례 전례 연습이 있습니다. 대부모님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교리반  
▶대상: 7 세 ~ 12 세      ▶교리시작일:12/8 오전 10:00  
▶장소: 정혜실      ▶문의:교육부

◎현금봉투 봉인 금지  
현금계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봉투 풀 봉인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금일 간식은 우민성 세실리아 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1 월 공소 세례 축일자 2 명  
11/22 세실리아(이민성, 손경희)

단체 소식  
◎꾸리아  
▶천교식사 후 13:00 하상실

◎복사단및 복사단 자모회  
▶천교식사 후 회합이 있습니다.

구역모임(소식)  
▶11 월 구역모임은 구역 미사로 대체합니다.  
1 구역 11/13 (수) 12:00 이현상 윌리엄 형제님 덕  
2 구역 11/16 (토) 13:00 신용두 세바스찬 형제님 덕  
3 구역 11/16 (토) 17:00 김경희 헬레나 자매님 덕  
4 구역:11/30 (토) 18:00 전대원 요한 형제님 덕  
5 구역 11/23 (토) 12:00 심현숙 카타리나 자매님 덕  
6 구역 11/30 (토) 장소 미정  
7 구역 11/22 (금) 18:00 임종선 요셉 형제님 덕

천교 식사  
11/10: 5 구역(닭곰탕 \$5/\$3)  
11/17: 6 구역      11/24: 7 구역      12/ 1: 1 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142 명)			
주일헌금	\$1335	교무금	\$1605
감사헌금	\$	성전건립	\$

위령 성월 기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이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十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十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十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11 월 본당 세례 축일자 (20 명)  
11/ 1 페기 (조필기)  
11/ 2 토마스 (이응석)  
11/ 3 실비아 (윤은숙)  
11/ 5 엘리사벳 (김훈옥, 조하은,이상은)  
11/10 레오 (김대현, 김은찬), 레아(차영은)  
11/11 마틴 (김영상)  
11/16 아네스 (이지우)  
11/20 에드몬드 (최용욱)  
11/22 세실리아 (김기린, 최샤니, 이옥화)  
11/23 클레멘스 (강민수)  
11/30 안드레아 (김의수, 이준규, 이종희, 이호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1/10	임연신 비아	이준서 사도요한 최다인 안나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1/17	이인선 켄마	이준우 바오로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성수 베드로 2 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11/24	김의수 안드레아	유서진 다니엘 이소민 그레이스 유세진 라파엘 최다혜 플로라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성수 베드로 이재순 데레사

“잘 사는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율하성당 주임  
이세형 유스티노 신부

예수님은 외형에 치우친 율법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인사받기를, 윗자리를 즐기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는 그들은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만한 마음처럼 보기 흉한 것도 없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겸손함을 잃어버려 자기 자신을 고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중심에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들어 잘못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거만한 마음이 죄는 아니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자기혐오도 거만한 마음가짐의 하나로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턱이 없는데도 짐짓 자기가 그들 사이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지나친 자기혐오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움과 거만한 마음가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움은 건전한 것이지만 거만한 마음가짐은 병이며, 더할 수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탈무드는 ‘현인이라 하더라도 지식을 함부로 떠벌이는 자는 무지를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은 자보다도 못하다.’고 경허할 것을 엄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자기도취의 위험에 대해서는 ‘돈은 자기도취의 지름길, 자기도취는 죄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富者)”를, 곧 “잘 사는 것”이라고 혼동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하며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참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한 베드로 사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직자들이, 수도자들이, 신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봉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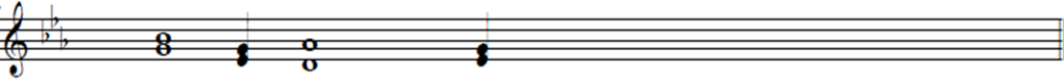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제 32 주일 (평신도 주일) (2024. 11. 10.)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17,10-16  
화답송 시편 146(145),6 ㄷ-7.8-9 ㄴ.9 ㄴ ㄷ-10 ㄴ ㄴ(◎ 1 ㄴ)



후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9,24-28

복음 환호송 마태 5,3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12,38~44